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총회세계선교부 이광국본부선교사(동남아, 유라시아, 중동권역, 임원회, 실행위, 타문화위, 행정처공문발송,(특)이슬람선교 및 단군상대책위, 선교관관리운영, 선교사 경조사, 증명서발급, 북아프리카중동선교회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류철배목사님과 귀 교회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맡은 바 직무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립니다.

■ 총회창립 111주년 총회주일에배(9월 1일 : 총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전신인 조선예수교장로회 창립일인 9월 1일 총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장 이순창목사의 “길가에 세운 기념비”란 제하의 설교와 함께 이어진 근속 30년, 10년 직원 표창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기도제목: 나라를 잃은 일제시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민족의 슬픔을 보듬고 함께 성장하기를 111년의 세월이 흐른 이때에 69개 노회 9476교회, 230만 성도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아름다운 신앙전통을 후세에 널리 전파하도록.....

■ 108회기 총회준비 가방작업(9월 14일 : 명성교회)

제 108회기 총회를 위한 준비작업인 총대 가방작업이 9월 14일 명성교회 식당에서 있었습니다. 1,500명 총대와 200명의 언권 위원들을 위한 가방분류작업을 위해서 총회직원과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2조로 나눠서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전산처리로 인해서 작업분량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 들었습니다.



기도제목: 1912년 총회창립이후 전쟁 등 부득이한 경우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열린 총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총회의 산적인 회무를 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동기나 지인들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제 108회 총회 (9월 19일-21일, 명성교회)



제108회기 총회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명성교회에서 9월 19일-21일 거행되었습니다. 총회장 김의식목사가 자동 승계되었고 부총회장으로 김영걸목사(포항남노회 포항동부교회)와 윤택진장로(대전노회, 대전제일교회)가 박수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전국 69개 노회에서 목사총대 524명, 장로총대 565명 총 1089명의 총대들이 참석해 총회의 주요정책을 논하고 각 부,위원회의 부장과 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기도제목: 총회가 목회자 세습 문제로 10년간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의 화합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 제 108회 총회 세계선교부 부서회의 (9월 19일, 명성교회)



(정연원선교사 근속 40년 수상)

제 108회기 세계선교부를 이끄는 임원진과 실행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부장으로 서은성목사(상신), 서기 박태부목사(새장승포), 회계 안운선장로(노량진)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40년을 현장 사역한 정연원선교사(일본)에 대한 상패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기도제목: 새 임원진과 실행위원들이 91개국에서 사역하는 1,515명의 선교사들을 잘 지도하고 협력하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제 12회 라이트미션 시상식(2023년 11월 09일: 그레이스 홀)

제 12회 라이트 미션(이사장 : 이광순) 선교사 시상식이 2023년 11월 9일 총회 그레이스 홀에서 있었습니다. 금 번 라이트미션 시상식에는 현역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송광옥선교사가 선교상을 받았습니다. 1990년 인도네시아로 파송 받



아 인니복음주의교단 협력사역을 통해서 500여개의 교회를 개척 및 설립하였고 현지신학교학장과 교수사역을 감당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기도제목: 선교현장에서 30여년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한 송광옥 선교사님의 앞날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 북아프리카중동선교회 총회(2023년 11월 21일: 목자교회)



북아프리카중동선교회 2차 총회가 11월 21일 목자교회(김동환이사)에서 있었습니다. 김동환 이사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정년 은퇴하는 한용구 이사장을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또한 3분의 이사님과 3분의 현장 선교사님이 허입이 되었으며 2023년 결산감사와 2024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도제목: 북아프리카중동권역에서 사역하는 8개국 9가정의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협력사역을 위해서 후원이사님들의 목양사역이 왕성해지고 이사님들과의 친밀감이 더욱 깊어지도록 협력하는 이사님들이 더욱 늘어나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고 박남수선교사 발인예배 (11월 27일 : 대연교회)



필리핀에서 사역하셨던 고 박남수 선교사님의 발인예배가 11월27일 대연교회(부산)에서 세계선교부 주관으로 거행되었습니다. 김동찬 본부선교사의 집례로 거행된 발인예배에서는 선교사회에서 특송, 세계선교부 서기이신 박태부목사가 “두 종류의 죽음”이라는 제하의 설교와 부장 서은성목사의 축도로 발인예배를 마치고 대연교회 담임목사의 인도로 예배당에서 교회 마당까지 발인예식이 있었습니다.

기도제목: 26년간 선교지에서 복음전파를 위해서 애쓰셨던 고 박남수 선교사의 선교의 자취가 계속 이어져서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 서울 크리스마스거리 트리니팅 (2023년 12월 7일 : 종로5가역- 연동교회)



크리스마스거리 - 서울트리니팅은 상업적으로 변해버린 크리스마스의 원래의 의미를 되찾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평화와 소망을 모두에게 나누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종로5가역에서 연동교회까지 40여 그루의 나무에 예쁜 뜨개 옷을 입힘으로서 추운 겨울을 이겨낼 따뜻한 온기를 나눕니다.

기도제목: 크리스마스거리 트리니팅을 통해서 기독교의 문화가 종로5가를 넘어서 서울시 전역에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삶의 현장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선교사 파송예배(2023년 12월 10일 : 왕궁제일교회)

선교사파송예배가 있었습니다. 이00, 박00선교사는 중앙아시아 A국가에 파송되는 선교사로서 이미 현재 사역경험이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총회선교사업무교육을 받고 새롭게 총회파송 선교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제일교회는 면단위에 소속된 교회지만 전담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선교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제목: 보내는 선교사나 가는 선교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인 선교를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 한해를 돌아보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는 한해였습니다. 인간적인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함을 수없이 반복하였지만 그곳에 함몰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기에 오는 해에는 더욱 열심을 다해서 후회 없는 한해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올해도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